

## 3,180만 달러짜리 티라노사우루스 화석



▲ 천문학적인 액수에 낙찰된 공룡화석. 사진=christies.com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이하 티렉스) 공룡의 화석이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에 낙찰됐다.

지난 6일 뉴욕에서 열린 크리스티 경매에서 한 티렉스 화석이 수수료 등을 포함 총 3,184만 달러에 낙찰됐다. 이는 예상가액의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 1987년 아마추어 고고학자 스탠 새크리슨이 사우스다코다주 배들랜드에서 발굴한 이 화석은 모두 188개의 뼈로 돼 있어 역대 가장 완벽한 티렉스 화석으로 꼽힌다. 발굴자의 이름을 따 스탠으로 불리는 이 화석은 키 3.9m, 길이 12m에 달하며, 생존했던 6,700만 년 전을 기준으로 보면 무게는 약 8톤 정도 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매 과정도 흥미롭다. 경매 시작 채 2분도 안 돼 당초 예상됐던 최대 800만 달러를 훌쩍 넘어 900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결국 역대 티렉스 화석 최고액에 낙찰됐다.

새 주인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기존 기록은 1997년 10월 소더비 경매에서 낙찰된 840만 달러다.

뉴욕타임스는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역대급의 공룡 화석 경매였다.”면서 “티렉스 화석이 이렇게 고가에 낙찰된 것은 상태가 거의 완벽한 것은 물론 지난 1902년 처음 발굴된 이래 50여 점 만이 존재할 만큼 희귀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 1,700마일 걸어 할머니 만나러 온 손자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할머니를 볼 수 없게 된 손자가 이탈리아에서 영국까지 무려 1,700마일을 걸어서 할머니댁에 도착했다.

6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인 아버지와 이탈리아인 어머니를 둔 10살의 로미오 콕스(Romeo Cox)는 지난해 이탈리아 남서부에 있는 섬 시칠리아로 이사했다. 그전까지만 해도

할머니와 왕래가 잦았지만, 올 초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비행기가 끊기면서 뜻하지 않게 이산가족이 됐다.

이에 콕스는 걸어서라도 할머니를 보러 가겠어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콕스의 부모는 허락하지 않았다. 콕스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아버지가 동행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중순 집을 떠난 두 사람은 두 사람씩 걸으며 스위스와 프랑스를 지났다. 콕스는 “부르튼 발이 피투성이가 됐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별을 보며 잠들고 바다를 만나면 해염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93일 만인 지난달 21일 런던 트래펄가 광장에 다다랐다. 콕스 부자는 2주의 격리를 마치고 지난 4일



▲ 사진= Romeo Cox 인스타그램

마침내 할머니 댁이 있는 옥스퍼드셔 위트니에 도착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걸음을 재촉한 콕스는 골목 안쪽 집 현관문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한 걸음에 달려가 뜨겁게 포옹했다.

손자를 품에 안은 할머니의 눈가도 촉촉해졌다. 콕스를 품에 안은 할머니는 “이제나저제나 하고 기다리느라 혼이 났다.”며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아주 환상적인 일을 해냈다.”며 감격스러워했다.

할머니는 “나를 보러 이탈리아에서부터 걸어서 오겠다는 손자 말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새 눈앞에 와 있었다.”고 기뻐했다.

## 개장 앞둔 지구 종말 대비용 '요새'

인류 대재앙의 날을 대비해 만들어진 미국의 한 피난처가 다음 달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 '요새'를 오픈하겠다고 밝혔다.

웨스트버지니아주 산골에 위치한 포티튜드 랜치(Fortitude Ranch)라는 이름의 피난처는 대재앙이 닥치면 요새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시설에는 1년 넘게 버틸 수 있는 비축 식량과 침입자를 물리칠 수 있는 반자동 소총 및 탄약이 창고에 가득 쌓여있고 감염된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 시설과 콘크리트 벙커 등도 구비돼 있다. 다만 비축 식량이 떨어질 경우 직접 사냥을 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

포티튜드 랜치는 1인당 연간 1,000달러의 회원비를 받는



▲ Fortitude Ranch 외부 모습. 사진=페이스북(Fortitude Ranch)

회원제로 운영된다. 지구 종말 등을 대비한 기존의 시설들이 초호화 시설을 완비하고 부유층만 접근할 수 있었다면, 포티튜드 랜치는 중산층을 겨냥한 대피소인 셈이다.

포티튜드 랜치의 첫 오픈일은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다. 포티튜드 랜치 CEO인 드류 밀러는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든 관계 없이 내전으로 인한 재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비합리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확대될 수 있는 폭력의 위험이 현실화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대선일 오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가입 문의를 받았으며, 입소하려는 사람들의 대기 리스트가 폭증했다고 밝혔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